

## 이소크라테스의 범(汎)그리스주의\*

김 헌\*\*

### [국문초록]

기원전 4세기에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른 바 '범(汎)그리스주의'를 내놓았다. 그것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1) 그리스인들은 싸움을 멈추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며, (2) 그 여세를 몰아 동방의 이방인들(페르시아인들)을 향해 군사적 원정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범그리스주의가 왜 그리스를 하나로 묶어주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동방원정을 주장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해명하려고 한다.

범그리스주의는 페르시아전쟁이라는 기원전 5세기의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되었다. 페르시아에 대한 적대감은 그리스를 하나로 묶어주었고, 나아가 페르시아의 위협을 봉쇄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으로 발전하였다. 이 정치적 구상은 이소크라테스에게 계승되어 정점에 이르렀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인도의 서부까지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2015년 6월 12일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 문명연구사업단 제23회 문명연구 심포지엄 “제국, 문명의 거울(1)”에서 『고대 그리스, 제국을 꿈꾸다-이소크라테스의 구상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주제어: 이소크라테스, 범그리스주의, 한마음 한뜻, 동방원정, 제국, 제국주의, 문명  
Isocrates, panhellenism, concord, eastward expedition, empire, imperialism, civilization

진격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실현되었다.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가 단순히 종족적 공동체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이념적 공동체라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철학과 언어, 종교와 신화, 역사와 전통, 법과 정치체제 등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스의 정신적 자산이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야만적인 이방인을 그리스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전한다. 범그리스주의는 이와 같은 문명과 계몽의 속성 때문에, 그리스인이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그리스인으로 만들기 위해 페르시아에 대한 동방원정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한편, 기원전 5-4세기 그리스의 중요한 정치적 이념이었던 범그리스주의에 비판적인 태도도 있었다. 이소크라테스의 철학적 경쟁자였던 플라톤은 공격적인 범그리스주의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일정 규모에 만족하는 절제된 이상적인 국가를 그려주었고,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와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의 예를 들어 제국주의적 팽창의 비극적 결말을 경고하였다.

## 1. 역사적 배경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이소크라테스(기원전 436-338년)는 “범(汎)그리스주의”(panhellenism)<sup>1)</sup>를 내놓았

1) ‘범그리스주의’(Panhellenism)는 이소크라테스가 직접 쓴 말은 아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인들”(panhellenes)이라는 말만 사용하였다. 이 표현은 이미 호메로스도 사용한 바 있지만(『일리아스』 제2권 530행) 그리스인 전체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은 아니었고, 아킬레우스가 충치하던 남(南) 톨살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리스 전체를 가리키려고 할 때 호메로스는 헬라스와 아르고스를 함께 썼다. Green의 보고에 따르면, ‘panhellenism’ (범그리스주의)라는 말은 Grote의 *A History of Greece; from the Earliest Period to the Close of the Generation Contemporary with Alexander the Great* (London, 1846-1856)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다(Green, P., (1996), “The Metamorphosis of the Barbarian: Athenian Panhellenism in a Changing World.” In R. W. Wallace and E. M. Harris, eds., *Transitions to Empire. Essays in Greco-Roman History, 360-146 BC, in honor of*

다. 그는 기원전 380년경<sup>2)</sup> 아테네에 학교를 세우고 활동을 하였는데<sup>3)</sup> 인재를 양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당대 아테네와 그리스가 직면한 정치적 사안에 관해서도 시의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였다.<sup>4)</sup> 그가 범그리스주의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은 『시민대축전에 부쳐』(Panegurikos)라는 연설문에서였다.

“이제 이방인들을 상대로는 전쟁을 하되, 우리 자신은 ‘한마음 한 뜻’(homonoia)이 될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sup>5)</sup>

여기에서 “이방인”이란 거대한 제국의 페르시아인을, “우리 자신”이란 소규모 도시국가에 나뉘어 살던 그리스인을 가리킨다. 기원전 4세기에 아테네는 20만 정도를 헤아리는 작은 도시국가였지만<sup>6)</sup> 이소크라테스는

---

*E. Badian*, pp. 5-36. Norman, Okla., and London, p. 6, p. 28 각주 7번). 이 개념은 18세기 말부터 만들어져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적인 의미를 갖게 된 범슬라브주의(Panslavism)의 영향을 받은 조어로 보인다. 이 개념은 이후 20세기 초 독일에서 고취되었던 범게르만주의(Pangermanism)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범헬라스주의’라는 번역도 가능하지만, 김봉철의 번역(‘범그리스주의’)을 따랐다. 김봉철(2001), 『이소크라테스의 유럽 관념의 실상과 한계』, 『서양고전학연구』 제16집, pp. 37-62 중 p. 48. 이 논문에서 김봉철은 “범그리스주의의 대표적인 주창자는 단연 이소크라테스였다.”고 밝힌 바 있다.

- 2) 이 연설문은 기원전 380년경에 유포되었으며, 다른 연설가에 의해서 올림피아 축제 기간에서 발표되었다(Norlin, G., (1928), *Isocrates*, Vol. 1, Harvard University Press, p. 119). 그러나 작성된 기간은 기원전 390년부터 380년까지 약 10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Sandys, J. E., ed., (1872), *Isocrates: Ad Demonicum et Panegyricus*, London, reprinted 1979 by Arno, pp. xlii-xliii.
- 3) 이소크라테스가 학교를 세운 것은 392년으로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세우기 약 5년 전이었다. 당대 학생들의 수나 영향력을 비교한다면 이소크라테스가 플라톤보다는 영향력이 더 컸던 것 같다. 그러나 나중에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이소크라테스의 학교에 버금가는 명성을 얻을 만큼 성장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Canto-Sperber, M., (1998), *Philosophie grecque*, Paris, p. 194.
- 4) 김현(2015), 『이소크라테스와 시민 교육』, 『서양고전학연구』 제54권 1호, pp. 35-64.
- 5) 『시민대축전에 부쳐』 3.

약 5천만 인구를 헤아리는<sup>7)</sup>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공격하자고 배포 있게 주장했다. 이런 과감성은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가 갖게 된 역사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두 차례 대규모 침략에 맞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면서 그리스를 구했고, 퇴각한 페르시아의 야욕과 재침략의 의지를 봉쇄하기 위해 델로스 동맹을 구성하였으며, 동맹의 맹주로서 '제국'적인 패권을 행사하였다. 이소크라테스의 공세적인 메시지는 아테네의 역사적인 기억과 저력에 바탕을 두고 현재의 위기를 직시하며 그려낸 정치적 상상력의 결정체였다.

그러나 인용된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적 구상이 그리스인들의 군사적인 자신감과 제국주의적 팽창의 의욕을 반영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리스가 직면했던 내부의 분열과 갈등, 전쟁에서 비롯된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그가 민감했던 그리스의 위기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벌어졌던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404년)의 여파였다. 두 도시국가는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지만, 전쟁이 끝나자 서로 경쟁하던 두 도시국가 사이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졌다. 30년 가까이 진행된 전쟁은 스파르타의 승리와 아테네의 패배로 끝났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에 30인 참주의 괴뢰정부를 세웠지만, 아테네는 참주들을 몰아내고 민주정을 회복하였다. 새롭게 일어난 아테네는 테베와 코린토스, 아르고스 등과 함께 반(反)스파르타 연합전선을 만들어나갔다. 그러자 스파르타는 지난날의 적이었던 페르시아와 손을 잡았다. 기원전 387년에 양 진영 사이에는 '왕의 협정'이 체결되었다.<sup>8)</sup> 스파르타는 그리스 본

6) Ober, J., (2010), "Wealthy Hellas"(Draft for the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2011), *Princeton/Stanford Working Papers in Classics*, p. 27.

7) Yarshater, E., (1996), *Encyclopaedia Iranica*, Routledge & Kegan Paul, p. 47. "Largest empire by percentage of world population". Guinness World Records. Retrieved 11 March 2015.

8) 평화조약을 맺게 된 원인에는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갈등도 있었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얼마 후(기원전 401년)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키로스가 그리스의 용

토에 대한 패권을 페르시아로부터 인정받으면서 그 대가로 페르시아에게 이오니아의 그리스 식민도시국가들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하였다.<sup>9)</sup>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은 스파르타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에게 페르시아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되었고, 내부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다.<sup>10)</sup>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경쟁 때문에 그리스 전체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sup>11)</sup> 범그리스주의는 갈등을 진정시키고 평화를 회복하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의 해법으로 이소크라테스가 던진 카드였다. 이 글은 그가 주장한 범그리스주의를 『시민대축전에 부쳐』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후 좀 더 폭넓은 문헌적 토대 위에서 이어져나갈 후속 연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

병을 고용하여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에 맞선 퀴로스를 지원했다. 페르시아 왕은 받들었다. 기원전 395년에 테베와 아테네가 주축이 된 포이오티아 동맹군이 스파르타를 상대로 코린토스 전쟁을 일으켰을 때, 페르시아는 포이오티아 동맹군을 지원하였다.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힘에 굴복해야 했다. 전쟁은 페르시아와 스파르타가 맺은 “왕의 평화조약”(=안탈키다스 조약. 기원전 387년)으로 막을 내렸다.

- 9)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막바지에 이른 기원전 415년경에 해군력을 보강하기 위해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 지원 덕분에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해군력을 압도할 수 있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가 있었지만, 그 대가로 이오니아 지역의 그리스 식민도시국가들을 페르시아에 양보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전례는 기원전 4세기에 이르러서 다시 아테네와 경쟁을 하는 와중에 되풀이되었던 것이다. Carlier, P., (1995), *Le IV<sup>e</sup> siècle grec jusqu'à la mort d'Alexandre*, Paris, pp. 11-14.
- 10) Usher, S., (1990), *Greek Orators III—Isocrates, Panegyricus & To Nicocles*, Warminster, p. 19.
- 11)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다리우스 왕이 집권한 이후 이어지는 3세대 동안 그리스는 그 이전의 20세대 동안보다 더 많은 불행을 겪었는데, “그중 일부는 페르시아인들에게 당한 것이었지만, 일부는 헬라스의 주도적인 국가들 사이에 패권(arkhē)을 두고 벌인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헤로도토스, 『역사』 제6권 98. 인용문은 천병희 (2009, 숲)의 번역을 약간 고친 것.

## 2. 그리스의 하나 됨과 동방원정 사이

“우리 자신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심을 버리고 함께 힘을 모아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자” 이소크라테스의 범그리스주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 내부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구축하려는 의지’와 ‘위협적인 그리스 외부의 이질적인 세력에 대한 정복’, 즉 ‘이질적인 외부를 동질화시키려는 욕망’이다. 그런데 범그리스주의는 모든(Pan-) 그리스(Hellas) 사람들이 수많은 도시국가에 흩어져 살고는 있지만, 같은 핏줄의 한 민족이니 서로 싸우지 말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평화롭게 살자고 하면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굳이 통합된 여세를 몰아 외부의 세력을 공격해서 정복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제국주의적 팽창은 범그리스주의를 넘어서 일종의 잉여처럼 보인다.

그러나 범그리스주의는 그 잉여적인 함축으로 해석되어 왔다. 플라워(M. A. Flower)의 보고에 따르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그러나 서로 연결된 의미를 갖는다”.<sup>12)</sup> 첫째는 “그리스라는 종족적인 정체성의 개념”이다. 그리스 사람은 같은 종족(또는 민족)이며, 이방인들(특히 페르시아 사람들)과는 구분(또는 대립)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페르시아의 침략과 항전을 통해 형성되어 급속하게 발전되었다.<sup>13)</sup> 여기에서 외부, 특히 페르시아에 대한 이질감과 적대감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의미는 보다 적극적이며 공격적이고 이념적이다. 이것은 그리스 사람들의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확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질적이며 적대적인 대상을 공격하고 정복하려는 욕망으로 이어진다. 플라워는 바로 이 개념에 특별히 관심을 집중시켰다.<sup>14)</sup>

12) Flower, M. A., (2000), “From Simonides to Isocrates: The Fifth-Century Origins of Fourth-Century Panhellenism”, *Classical Antiquity*, Vol. 19, No. 1, pp. 65-66.

13) Hall, E., (1989), *Inventing the Barbarian. Greek Self-Definition through Tragedy*, Oxford.; Hall, J. M., (1997), *Ethnic Identity in Greek Antiquity*, Cambridge.

플라위는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에 이르는 그리스 지성사의 흐름을 따라가며 여러 사람들의 범그리스주의의 주장을 수집하여 그 개별적인 특징들을 잘 보여주었으며, 범그리스주의가 그리스의 하나 됨에 멈추지 않고 페르시아에 대한 선제적인 공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의 특징도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왜 두 계기가 하나로 묶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논문은 그 부분의 해명에 초점을 맞춘다. 간략하게 요지를 말하자면, 이소크라테스가 범그리스주의를 종족이 아니라 이념의 동질성으로 규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종족에서 이질적인 페르시아를 '그리스'라는 공동체 안에 강제되라도 포섭하려는 제국주의적인 전략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 3. 이념적 공동체로서의 그리스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를 혈연적인 종족적 공동체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그리스'는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사상을 갖게 되어 역사와 종교를 공유하며 운명을 같이 하는 이념적 공동체였다. 혈연적 공동체라면 외연의 확장은 제한적이며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사고방식과 생각만 같이 한다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념의 공동체를 내세우면, 그 외연은 혈연이나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확장될 수 있다. 실제로 이소

- 
- 14) 그에 따르면, 페르시아에 대한 민족적 이질감이나 적대감에서 그치지 않고 동방원정을 통한 페르시아의 정복을 범그리스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Kessler, J., (1911), *Isokrates und die panhellenische Idee*, Paderborn.; Sussman, J. H., (1921), *Die Grundzüge der panhellenischen Idee im 5. und 4. Jahrhundert v. Chr.*, Diss. Zürich.; Mathieu, G., (1925). *Les idées politiques d'Isocrate*, Paris.; Perlman, S., (1976), "Panhellenism, the Polis and Imperialism", *Historia* 25, pp. 1-30; Sakellariou, M. B., (1980), "Panhellenism: From Concept to Policy" In M. Hatzopoulos and L. Loukopoulos eds., *Philip of Macedon*, Athens, pp. 128-45; Green, P., (1996), pp. 5-36.

크라테스는 그리스를 하나의 이념의 공동체로 규정하고, 이념의 공동체로 그리스를 묶어준 것이 바로 아테네였다고 주장했다.

“우리 도시(아테네)는 현명한 생각에서나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나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앞서 나간 나머지, 이 도시에서 배운 학생은 다른 사람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헬라스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종족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만들었고, 공통되는 태생적 조건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헬라스인들’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sup>15)</sup>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헬라스)라는 공동체를 혈연적인 동질성이 아니라 생각과 사상의 동질성 위에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그가 말한 ‘한마음 한뜻(homonoia)도 혈연적인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생각이 같다는 뜻이다.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같은 역사와 문화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그리스’에 의한 동질성 확보와 ‘그리스’의 외연의 확장은 수많은 도시국가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인들을 하나로 묶는 이념적인 힘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힘이 페르시아를 포함하여 그리스 외부의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소크라테스는 그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 같다.

이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이념적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를 만드는 데 앞장선 것은 단연 아테네였고, 아테네는 아테네 이외의 타지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외부의 이방인들에게도 개방적이었다. 아테네는 서로 다른 도시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갖게 한 교사와 같은 존재였고, 수많은 도시국가들을 건설하여 사람들이 건너가 살 수 있게 해주었고, 다른 도시 사람들의 궁핍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주었다. “이방인을 우

15) 『시민대축전에 부쳐』 50.



호적으로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을 한 집안사람처럼 대하였으며”<sup>16)</sup> 페이 라이오스 항구를 세워 여러 지역의 무역을 가능하게 하였다.<sup>17)</sup> 모든 그리스인들이 참여하고 외국인들도 함께 참관할 수 있는 다양한 종교적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서로 간의 적대감을 풀고 서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며 새로운 동료의식을 만들 수 있는 전통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다.<sup>18)</sup> 이와 같은 개방적인 태도가 범그리스주의의 확장 범위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된다.

아테네는 또한 지혜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철학(philosophia)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sup>19)</sup> 이소크라테스의 철학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철학이 ‘지혜(sophia)의 사랑(philo)’이라고 할 때, 이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지혜는 ‘급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시의적절한(kairos)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현명함(phronésis)과 그 생각을 말(logos)에 담아 의견(doxa)을 구성하는 능력’이었다.<sup>20)</sup> 따라서 말은 절대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도구라기보다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고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상이한 의견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공적인 도구였다. 그밖에도 이소크라테스는 종교와 신화, 법과 제도, 군사적 연대의 기억과 역사 등을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런 요소들은 같은 말을 쓰면서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그리스 사람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묶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리스를 이념적 공동체로 규정하는 순간, 민족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들조차도

16) 『시민대축전에 부쳐』 41.

17) 『시민대축전에 부쳐』 42.

18) 『시민대축전에 부쳐』 43.

19) 『시민대축전에 부쳐』 47.

20) 따라서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은 그런 현명함과 능력을 추구하며 자기 영혼을 돌보는 것(epimeleia tēs psukhēs)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런 능력과 현명함을 가르치는 교육(paideia)이었다. Kim, H., (2012), “Isocrates’ Philosophy in Relation to Education”, *The Journal of Greco-Roman Studies*, vol. 47, pp. 5-33; 김현(2013), pp. 73-99.

그리스인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확장성을 갖는다. 여기에서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의 맹아를 읽는 것은, 다소 앞서나간 해석이긴 해도 가능한 일이다.

#### 4. 문명화와 계몽적 성격

이소크라테스의 생각을 확대 해석하면, 누구나 그리스의 말과 정신, 가치와 이념을 배워 자기 것으로 삼는다면, 비록 그가 이민족이며 심지어 페르시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인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그리스의 정신과 문화, 세계관과 사고방식, 정치와 법의 원칙이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것이고 누구나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고 확신하게 되면, 그리스를 확장하는 일은 사명이 된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리스인'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를 중심으로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그리스주의의 궁극적인 내용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이질적인 대상들을 위대한 그리스의 정신과 문화로 개화시키는 일까지 함축하게 된다. '그리스'는 그리스 고유의 요소들을 묶는 이름을 넘어서 그 이외의 모든 것을 포섭하고 판단하는 보편적인 것이 된다.

그의 주장에 충실하게 되면, 그리스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그리스인들만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념적으로 이질적인 이방의 페르시아인을 그리스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인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리스적인 것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야 하며, 문명화의 깃발을 들고 페르시아로 원정을 떠나야만 한다. 이렇게 그의 범그리스주의의 두 부분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념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리스 공동체를 만들자. 위대한 그리스 문명으로 하나가 되자. 그러니 야만적인 이방인을 그리스인으로 만들자. 그

들의 제국을 그리스의 제국으로 만들자!’ 이와 같은 범그리스주의라면 문명화(civilization)와 계몽(enlightenment)의 사명으로 충만한 것이 된다.

물론 이소크라테스가 이와 같은 ‘오리엔탈리즘’적 제국주의를 의식했는지는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의 범그리스주의가 그런 제국주의적인 함축을 갖는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소크라테스가 세계시민주의를 생각했다는 시사는 너무 성급한 것일까? 어쩌면 이소크라테스의 주장이 그렇게 야심만만하지 않고 의외로 단순한 것일 수도 있다. 페르시아를 가만두면 자꾸 그리스를 건드리고 분열시키며 호시탐탐 그리스를 침략하려고 하니, 그럴 바에는 아예 먼저 그들을 쳐서 고통과 파멸과 위협의 불씨를 죽이자는 전략일 수도 있다. 그리스의 내부 분열과 궁핍과 같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셈법에서 범그리스주의를 주장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는 플라위의 첫 번째 개념처럼 민족적인 동질성을 강조하여 범그리스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했을 것이다. 문화적 우월성이나 이념적인 동질성보다는 민족적인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이 단합을 더욱 강하게 하고 페르시아의 위협에 맞서 하나로 뭉쳐야 할 이유를 훨씬 더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크라테스가 그리스를 이념적 공동체로 주장한 것은 문명화와 계몽의 사명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아테네가 주도권을 쥐고 그리스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 『시민대축전에 부쳐』가 발표될 당시에 객관적인 국력은 스파르타가 아테네보다 우위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테네가 스파르타보다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강조해야 한다. 이소크라테스는 이 연설문의 앞부분에서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힘을 합쳐 그리스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의견을 수정했고, 스파르타보다는 아테네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했다. 일단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아테네가 군사적으로 저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sup>21)</sup> 그와 동시에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와 손을 잡고 그리스

의 패권을 노렸으며 그 대가로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페르시아에 넘겨주었다고 공격했다. 페르시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의 대상이며, 그들을 끌어들이어 그리스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sup>22)</sup>

이소크라테스의 주장은 명백하다. 그리스가 내부의 분열과 갈등, 다툼을 멈추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가 된 그리스를 아테네가 주도권을 쥐고 이끌고 나갈 것.<sup>23)</sup> 그렇지만 물음은 여전하다. ‘좋다.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의 단합을 주도할 지도자로서의 조건을 갖췄다고 하자. 그런데 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쳐야 하는 것인가?’ ‘페르시아는 위협하니까. 언제 우리를 칠지 모르니까.’ 이것은 불충분한 대답이다. 그런 이유라면 방어체제를 굳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군사를 모아 페르시아를 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협한 일이며, 승산도 많지 않다. 위협 요소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동방원정에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 실제로 기원전 5-4세기에 범그리스주의를 두고 많은 그리스의 지도자들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동방원정에 대한 경계심을 표했으며, 이소크라테스의 촉구와 권유에 그리스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부응하지 않았다.

21) 『시민대축전에 부쳐』 99.

22) 『시민대축전에 부쳐』 125.

23)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단독으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와 같은 해석은 다음과 같은 학자의 글에서 읽을 수 있다. Ryder, T. T. B., (1965), *Koine Eirane. General Peace and Local Independence in Ancient Greece*, Oxford, p. 50.; Dillery, J., (1995), *Xenophon and the History of His Times*, London, p. 56. 그러나 플라위는 이와 같은 해석을 반대한다. 이소크라테스가 선택한 고도의 수사학적 전략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순진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당시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넘볼 수 없는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테네에게 최선은 스파르타와 함께 주도권을 나누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파르타-아테네의 쌍두마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사학적 방법은 “아테네가 스파르타보다 주도권을 쥌 자격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의 수사학적 전략은 결국 아테네가 주도권을 단독으로 갖는 것(sole hegemony; cf. 18-20, 99)이 더 낫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함께 주도권을 쥌 수 있기를(shared hegemony; 17, 185, 188) 희망했다는 뜻이다. Flower, M. A., (2000), p. 94.

## 5. 트로이아 전쟁과 페르시아 원정

이소크라테스가 '범그리스주의'를 최초로 주장한 것은 아니다. "물론 저는 자칭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이런 말을 하겠다고 달려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sup>24)</sup>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람이 소피스트인 고르기아스와 법정연설문 작가인 루시아스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우리 자신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은 완전히 풀어 버리고 그것을 그 이방인<sup>25)</sup>에게로 돌려야 한다고 훈계를 하면서, 우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부터 생겨난 불행들과 그를 치는 원정에서 생겨날 이점들을 자세하게 열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sup>26)</sup> 이소크라테스는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비전을 비판적으로 계승했던 것이다.

5세기부터 4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페르시아는 강력한 적대국이었고 두렵고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방인들에 대해 그리스인들이 소리 높이는 호언장담, 문화적, 정신적 자신감과 정치적 우월감은 그들의 가슴속에 잠재되어 있던 두려움의 반증이기도 했다. 헤로도토스는 그와 같은 적대감을 상호적인 것으로 재구성했다. 그는 그리스와 이방인, 유럽과 아시아, 두 진영의 갈등이 여자문제로 시작되었다는 전설을 전해 주었다. 먼저 포이니케인들이 그리스로 와서 이오 공주와 여인들을 납치해서 이집트로 달아났다. 그러자 크레테인들은 포이니케의 튀로스로 가서 에우로파를 납치했고, 이올코스의 이아손은 콜키스로 가서 메테이아 공주를 납치했다. 아시아의 차례가 되자 트로이아의 파리스는 스파르타로 가서 메넬라오스의 왕비 헬레네를 납치했다. 헬레네를 빼앗기자 그리스인들은 대군을 일으켜 아시아를 공격했고 트로이아의 군대를 궤멸시켰다. 동방의 페르시아인들의 눈에 이것은 서방의 과잉반응이었다. 여기

24) 『시민대축전에 부쳐』 3.

25) 페르시아의 왕 아르탁세르크세스(기원전 404-359)를 가리킨다.

26) 『시민대축전에 부쳐』 15.

에서 그리스에 대한 페르시아인들의 적대감은 치솟았다고 헤로도토스는 말했다.<sup>27)</sup>

트로이아의 함락에 대한 아시아인의 보복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스가 다시 아시아를 도발했다.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아시아 대륙으로 건너가 식민도시를 건설했는데, 이것도 그리스가 아시아를 침략한 사례였다.<sup>28)</sup>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식민도시들을 정복하자, 기원전 499년에 이오니아에 살던 그리스인들은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들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도움을 청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밀레토스의 참주였던 아리스타르고스는 스파르타의 클레오메네스를 찾아와 원조를 요청하였는데, 그때 이미 동방원정까지 제안했다고 한다.

“헬라스 신들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그대들은 같은 핏줄을 가진 (homaimonas) 이오니아 사람들을 노예상태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대들에게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용감하지 못하지만, 그대들은 전쟁에 관해서는 가장 뛰어난 능력(aretè)을 갖춘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 코아스페스 강변에 수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수사는 대왕이 거주하고 그의 보고(寶庫)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대들이 이 도시를 함락하면 감히 제우스와도 부를 겨룰 수 있을 것입니다. …… 손쉽게 아시아 전역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데, 어째서 다른 길을 선택하시렵니까?”<sup>29)</sup>

27) 헤로도토스, 『역사』 제1권 4-5.

28) “전쟁이나 내분 때문에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자들이 헬라스의 다른 지방에서 안정된 공동체인 아테네로 망명하여 그곳 시민이 되었고, 그 결과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여 앗티케 땅으로는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아테네는 이오니아 지방에까지 이주민을 내보냈다.” 투퀴디데스 『펠로폰네노스 전쟁사』 제1권 2.6. 천병희의 번역(숲, 2011)을 살짝 고쳐서 인용하였다.

29) 헤로도토스, 『역사』 제5권 49.

아리스타르고스는 혈연적인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편, 동방원정의 정치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클레오메네스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반면 아테네는 지원군을 이오니아에 파견했고, 페르시아의 사령부가 있는 사르디스까지 진격했다. 페르시아는 기원전 494년에 이오니아의 반란을 완전히 진압했고, 아테네에 대한 응징으로 그리스를 침공했다.

페르시아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단순히 여자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적이며 군사적인 것이었다. 트로이아 전쟁에서 그리스인들이 '자행한 동방원정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서의 서방원정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전쟁은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그 이후 페르시아는 계속해서 그리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헤로도토스가 트로이아 원정을 페르시아 원정에 빗대어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지 않는 페르시아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려는 그리스인들의 허세로 읽힐 수 있다.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을 노래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가 문서화되고 인문교양 교재로서 권위를 본격적으로 인정받았던 시기를 기원전 9-8세기가 아니라, 페르시아 전쟁 이후인 기원전 5-4세기 그리스 고전기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주장도<sup>30)</sup> 같은 맥락에서의 정치적 군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의 위협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아킬레우스와 오뒷세우스를 영웅으로 기억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등 기원전 5세기 그리스 고전기의 작가들이 트로이아 전쟁의 일화를 아테네 시민들이 모두 모인 디오니소스 극장의 비극 무대에 올려놓았던 것도 이와 같은 정치적인 분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sup>31)</sup>

30) 이태수(2013), 『호메로스의 영웅주의 윤리관』, 『서양고전학연구』 제50집, pp. 5-32 중 pp. 6-8.

31) 기원전 4세기 중엽에 동방원정을 감행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일화는 그와 같은

## 6. 페르시아 원정의 새로운 국면

실제로 범그리스주의는 페르시아전쟁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sup>32)</sup> 서로 흩어져 싸우던 그리스인들이 공동의 거대한 적을 맞이하는 순간 자신들이 같은 민족으로 뭉쳐야만 할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한 것이다. 범그리스주의가 페르시아 전쟁을 계기로 탄생한 것이었으므로 그리스의 하나 됨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던 관념이었고, 페르시아를 공세적으로 치자는 것도 역시, 일단은 고통스러웠던 전쟁의 역사적 경험을 미래에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데에서 나오는 생존의 전략이었을 것이다.

페르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킨 플라타이아 전투(기원전 478년)의 승리를 노래한 시모니데스(기원전 556-468년?)의 한 구절에서 이미, 웨스트(M. L. West)가 복원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이 동방원정을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레스는] [새로운] 연합군을 완성하여 [메디아인들(=페르시아인들)을] 아시아에서 몰아낼 것이며, [제우스는 아테네에게 나중에] 고개를 끄덕여주었다네.”<sup>33)</sup> 이것은 거대 제국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

---

문화적 취향의 정치적 이념화를 보여준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창과 칼뿐만 아니라 트로이아의 전사들의 무용담으로 무장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킬레우스’라고 불렸고 아킬레우스를 자신의 이상형으로 삼았으며 동방원정의 의미와 자신감을 그에게서 찾았다. 기원전 334년에 코린토스에서 그리스인들의 회의가 열려 페르시아 원정이 결정되었을 때,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 총사령관으로 공표되었다. 그는 트로이아 원정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의 뒤를 잇는 제2의 아가멤논으로 자리매김 되었고, 아킬레우스의 뒤를 잇는 제2의 아킬레우스가 되길 원했다. 그의 동방원정은 개인적인 야심의 실천이기도 했지만, 페르시아 전쟁 이후 본격화되었던 범그리스주의적 감정과 열망의 완결판이었다.

32) 많은 학자들은 범그리스주의가 형성된 것을 대체로 기원전 5세기 후반으로 잡는다. Cartledge, P., (1993), *The Greeks*, Oxford, p. 43; Romilly, J. de, (1988), *Les grands sophistes dans l'Athènes de Périclès*, Paris, Éditions de Fallois.; Perlman, S., (1976), pp. 1-30. 특히 Romilly는 소피스트운동과 함께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많은 문헌적인 증거들은 Flower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페르시아 전쟁이 종료된 후인 5세기 전반에도 이미 동방원정의 구상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낸 감격이 아시아로 쳐들어가 페르시아인들을 몰아내야겠다는 자신만만 야심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리스의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자산에 대한 자신감과 문명화, 계몽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정에 대한 자신감의 바탕에는 페르시아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안전의 욕구가 깔려 있다. 따라서 동방원정에 대한 촉구는 감정적이며 방어적인 함축을 가진 것이었지 적극적인 이념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가 더 이상 페르시아의 침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단합된 힘을 갖추는 것에 있었다.

페르시아에 대한 공세적인 의미의 범그리스주의는 기원전 5세기부터 꾸준히 성장하였다. 기원전 466년 팜필리아 에우뤼메돈 강에서 동방의 세력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키몬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재개하기 위해 스파르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의도는 육상에서의 스파르타 전력과 해상에서의 아테네의 전력이 전체 그리스를 이끌어 페르시아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었다. 키몬을 두고 “전 그리스인들의(panhellônôn) 최선의 지도자”라고 노래한 희극작가 크라티노스의 표현에서<sup>34)</sup> 키몬의 범그리스주의의 공세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페르시아 원정을 위해 그가 주장한 ‘쌍두마차체제’는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된 역사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키몬의 구상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해 깨졌고, 두 도시국가는 물론 그리스 전체가 전쟁의 고통으로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왜 키몬은 페르시아에 대한 원정을 주장했을까? 그는 페르시아를 그리스에 위협한 세력으로 생각했으며, 그리스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아리스토파네스가 『뤼시스트라테』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어리

33) West, M. L., (1993), “Simonides Redivivus”, *Zeitschrift für Papyrologie und Epigraphik* 98, pp. 1-14.

34) 플루타르코스의 『키몬의 생애』 10.4.(=크라티노스의 단편 1).

석음을<sup>35)</sup> 특히 스파르타의 배은망덕을 비판하면서<sup>36)</sup> 페르시아 전쟁의 기억을 되살려냈고 둘 사이의 친애(philia)와 맹약을 기원했는데<sup>37)</sup> 바로 이 대목에서 키몬의 정치적 구상의 근본적인 취지를 읽어낼 수 있다.

한편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는 트로이아 원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네이아의 비장한 각오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상기시켰다.

“헬라스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어요. 그대들은 나를 제물로 바치고, 트로이아를 함락하세요. 그것은 두고두고 내 기념비가 되고, 내 자식이, 내 결혼이, 내 영광이 될 거예요. 어머니, 헬라스인들이 이방인들을 지배해야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이방인들은 노예고, 헬라스인들은 자유민이니깐요.”<sup>38)</sup>

여기에서 그리스인이 페르시아인의 침략과 지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나아가 페르시아를 정복해야 하는 이유도 보인다. 그것은 정치적인 우월감으로 표현되었다. 노예이며 야만적인 이방인들에게 자유민이며 문명인인 그리스가 지배를 받을 수는 없고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한다는 것이다. 적에게 당한 패배는 그 자체로 고통이겠지만, 그 적이 문명인이 아니라 야만인이며, 관대하고 너그러운 자유시민이 아니라 폐약질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노예라면 그 패배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범그리스주의의 형성은 페르시아에 대한 적대감과 두려움에서 촉발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적대감과 두려움의 이면에는 페르시아

---

35) 아리스토파네스, 『뤼시스트라테』 1129-1134행.

36) 아리스토파네스, 『뤼시스트라테』 1143-1146행.

37) 아리스토파네스, 『뤼시스트라테』 1246-1268행.

38) 에우리피데스, 천병희 옮김(2009),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1397-1401, 숲.

제국에 대한 동경과 경쟁의식도 있다. 즉 범그리스주의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을 모범으로 삼아 도시국가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의 통합과 제국의 형성을 정치적으로 상상한 결과가 범그리스주의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범그리스주의가 이방에 대한 적대감과 두려움, 동경과 경쟁의식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세계시민주의의 이념에 가깝게 다가가는 과정에 집중된다. 에우리피데스의 구절에서 범그리스주의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그리스 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이념, 그리고 그리스 정신이 세계를 지배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범그리스주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리스인은 단순히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스인이란 단순히 그리스 종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지키는 시민을 뜻한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위협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페르시아를 굴복시키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문화, 말과 지혜를 사랑하며(philosophos) 철학을 존중하며, 아름다움을 사랑하는(philokalos) 그리스인으로 만들 때만 가능하다. 설령 그 이념은 구체적으로는 군사적 원정으로 실천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페르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인이 이념적으로 그리스인이 될 때 완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범그리스적 의식은 기원전 4세기에 이소크라테스에 이르러 이념적 측면에서 좀 더 명확해진다.

## 7. 범그리스주의의 실현

그리스의 단결과 페르시아에 대한 원정을 역설했던 이소크라테스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공동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범그리스주의를 구상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아테네가 단독으로 주도권을 행사하여 그리

스를 통합하고 동방원정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피력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연설문(logos)을 썼다.<sup>39)</sup> 그러나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누렸던 패권을 회복하고 그리스 세계를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자, 그는 그리스 전역에서 그의 뜻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을 찾아서 연설문과 편지를 썼다.<sup>40)</sup>

『시민대축전에 부쳐』를 발표한지 약 12년째 되는 해에 이소크라테스는 당시 카르타고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시라쿠사의 참주 디오뉴시오스 1세를 주목했다.<sup>41)</sup> 그에게 편지를 써서 “헬라스의 구원(또는 안전)”과 관련해 그리스 내분을 종식시켜 하나로 묶고 페르시아로 원

39) 그는 정치적인 글쓰기를 한 최초의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Ober, J., (1998), *Political Dissent in Democratic Athens, Intellectual Critics of Popular Ru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Timmerman, D. M., (2002), “The Aristotelian Fix: Fourth Century B.C. Perspectives on Political Deliberation”, *Rhetoric Society Quarterly*, Vol. 32, No. 3, pp. 77-89; 김현(2015), pp. 35-64.

40) 이소크라테스의 범그리스주의에서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문제다. 그것은 하나의 단일한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인가, 아니면 도시국가들의 자유와 자치를 전제로 평화적 공존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인가? 이소크라테스가 기원전 4세기의 위기 상황에서 그려내는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유사한 ‘최선자들의 지배(aristokratia)를 주장하면서도 귀족정과 민주정이 혼합된 정체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기도 하고(『전 아테네 시민축전에 부쳐』 131. 김봉철(2004), 제4장 이소크라테스와 아테네 정체개혁), 특정 정체를 옹호하는 대신 어떤 형태든 정치체제(politeia)가 있는 것이 무정부상태보다는 낫다고 보면서, 권력을 가진 자의 덕(arete)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Konstan, D., (2004), “Isocrates’ Republic”, *Isocrates and Civic Education* (ed. by T. Poulakos and D. Depew),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pp. 107-124.

41) 이소크라테스의 경쟁자였던 플라톤도 디오뉴시오스의 정치적 조연자였다. 그는 디오뉴시오스를 찾아갔고, 철학이 정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 하지만 디오뉴시오스는 곧 플라톤의 조언에 흥미를 잃었고 급기야 플라톤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플라톤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안니케리스의 도움으로 아테네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정을 떠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아테네가 언제든 그를 도울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리의 도시는 당신이 헬라스에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기 위하여 행동한다면 기꺼이 당신과 함께 싸울 자세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지금 주어진 이것보다도 더 멋진 적기(適期)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sup>42)</sup> 그러나 디오뤼시오스는 답이 없었다.

356년에 이소크라테스는 스파르타의 아르키다모스 3세에게도 편지를 보냈다.<sup>43)</sup> “저는 믿습니다. 다른 헬라스인들이 만약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말로써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헬라스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방인들을 겨냥한 군사적 원정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들을 가장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sup>44)</sup> 그러나 아르키다모스도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주목한 인물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였다. 기원전 342년에 만 94세였던 그는 필리포스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최근에 필리포스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군사적 원정을 떠나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sup>45)</sup> 불필요하게 무모한 행위를 하다가 위협에 빠져 부상을 입었던 사실을 알고 답답한 마음에 편지를 보냈다. 필리포스가 그리스를 통합하고 페르시아의 원정을 완수할 인물이니, 제발 사소한 전쟁터에 뛰어들어 경거망동하지 말고 신중하고 사리분별력 있게 행동하라고 충고했다. 덧붙여 아테네가 마케도니아의 가장 유용한 연합군이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42) 「디오뤼시오스에게 보내는 편지」 8.

43) 이 편지가 이소크라테스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다. Smith, L. F., (1940), *The Genuineness of the Ninth and Third Letters of Isocrates*, Lancaster.

44) 「아르키다모스에게 보내는 편지」 17.

45) 이 편지를 쓴 시기에 필리포스는 트라키아인들과 원정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342-339년).

“저는 아테네에 관하여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헬라스 사람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사안들을 위해서도 아테네보다 더 유익한 도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sup>46)</sup> 이와 함께 이소크라테스는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당시 알렉산드로스는 14살 소년이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이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염두에 둔 듯, 쓸데없는 논쟁술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라고 조언하면서,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숨기지 않았다.

현존하는 마지막 편지는 338년 가을에 필리포스 2세에게 보낸 것이었다. 이 편지는 이소크라테스가 만 98세가 되던 해,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아테네가 마케도니아에게 패배한 직후, 이소크라테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것으로 그가 남긴 최후의 글이다. 그는 아테네와 마케도니아의 적대적인 싸움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필리포스에게 그리스를 통합하고 아시아로 원정을 떠나 페르시아를 정복하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냈다. 먼저 그는 이전에 필리포스를 위해 썼던 연설문의 일부를 상기시켰다.

“그 당시 저는 이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도시(=아테네)와 라케다이몬의 도시(=스파르타)와 테베인들의 도시와 아르고스인들의 도시를 중재한 다음에 헬라스인들을 한마음 한뜻(homonoian)이 되게 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sup>47)</sup>

그러나 평화로운 연대의 꿈은 전쟁으로 깨졌다. 이소크라테스의 구상 가운데 반쪽은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그 대신 분명해진 것이 있었다. 그리스가 하나가 되어 페르시아를 향해 동방원정을 떠나야만 한다면, 그 원

46) 「필리포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17.

47) 「필리포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2.

정의 선봉에 서서 모든 것을 주도할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꿈꾸던 정치적 비전의 반쪽은 그래서 여전히 희망적이었다. 깨어진 반쪽, 즉 전쟁과 불화의 상처를 최대한 빨리 치유하고 이제 필리포스를 중심으로 뭉쳐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필리포스도 그런 생각이었다. 그리스를 통합했으니 아시아를 향해 나가고 싶었던 것이다.<sup>48)</sup> 필리포스의 동방원정 계획은 그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었으며, 이소크라테스의 구상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일까? 아니면 이소크라테스의 조언에 따라 필리포스가 행동한 것일까? 이소크라테스는 분명히 그에게 연설문과 편지를 보내 그와 같은 구상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이소크라테스가 그리던 정치적 구상이 이루어질 시기에 이르렀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필리포스에게 정치적인 야망과 힘을 실어 주려고 했다. 그의 수사는 마치 필리포스의 자신감과 야망을 반영하듯이 극단적인 과장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그가 만약 페르시아로 건너가 아시아를 정복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명성을 줄 것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넘어 신의 경지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에 당신에게 남은 것은 신이 되는 것뿐입니다.”<sup>49)</sup>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평생 꿈꾸며 갈고 닦아온 정치적 구상이 필리포스를 통해 실현된다면, 자신의 삶은 의미 있게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

48)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가 끝난 후에 코린토스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필리포스는 동방원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관해서 김봉철(2004, p. 281)은 이렇게 정리했다. “기원전 338년의 코린토스 회의에서 의결된 결의내용은 이소크라테스의 범그리스주의 구상과 상당히 유사하다. 코린토스회의에서는 모든 그리스인들의 자유와 독립이 천명되고 그리스 전체의 일반적 평화가 추구되었으며, 또 페르시아원정이 의결되고 필리포스가 그 총사령관으로 선출되었다. 이 결정들은 이소크라테스의 평소 주장과 거의 일치된다.”

49) 「필리포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4.

“저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제 고령의 나이에 대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생명을 연장해 왔기 때문에, 제가 젊은 시절 마음속에 그렸던 것들과 『시민대축전에 부쳐』라는 연설문과 당신에게 예전에 보냈던 연설문에서 쓰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지금 당신의 실천들에 의해서 그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 때문입니다.”<sup>50)</sup>

그러나 그 희망은 필리포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필리포스는 동방으로 건너가기 전에 암살을 당했고, 그의 뒤를 이은 젊은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군사적으로 통합하고 동방원정을 떠나 인도 서부까지 정복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소크라테스의 구상을 알고 있었고, 그의 이념에 따라 동방원정을 감행한 것일까? 둘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잠시 보류하더라도, 두 사람의 주장과 실천 사이에는 뗄 수 없는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동일성과 유사성에 관한 분석은 필요하다.<sup>51)</sup> 일부의 학자들이 이소크라테스가 필리포스에게 썼던 연설문과 편지를 알렉산드로스가 나중이라도 읽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0) 『필리포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6.

51) Merlan, P., (1954), “Isocrates, Aristotle and Alexander the Great”,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Bd. 3, H. 1, pp. 60-81; Laistner, M. L. W., (1930), “The Influence of Isocrates’s Political Doctrines on Some Fourth Century Men of Affairs”, *The Classical Weekly*, Vol. 23, No. 17, pp. 129-131.



## 8. 범그리스주의에 대한 경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소크라테스에서 정점을 찍은 범그리스주의는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 역사에서 긍정적인 것으로만 평가될 수는 없다. 특히 문화와 예술,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다. 알렉산드로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거대한 정복지가 분할되자, 그리스의 문명의 찬란했던 고전기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꽃 피워낸 문화의 종말을 뜻했다. 실제로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으로 건설된 제국의 문화는 그 이전의 시기에 비교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범그리스주의, 특히 그것에 함축되어 있던 제국주의적 팽창이 그리스 문명의 역동성을 억눌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수한 그리스 문화와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하나의 거대한 폴리스를 세우려는 범그리스주의의 기획은 오히려 그리스 문화의 생산력을 거세한 꼴이 되어 버렸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했던 것인 양, 범그리스주의의 정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야심과 팽창을 경계하며 동방원정의 위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기원전 5세기부터 4세기에 이르기까지 아테네에서는 내내 끊이지 않았다. 이제 범그리스주의를 경계하던 다양한 목소리를 문학과 역사, 철학의 영역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면서 이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이들은 그리스의 문명을 꽃피웠던 도시국가 체제를 선호하였으며, 그를 바탕으로 그리스인들이 서로 적대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공존의 원칙에 동의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범그리스주의의 다른 한쪽, 즉 제국주의적 팽창과 군사적인 동방원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극히 경계했다.

기원전 472년에 아이스퀼로스는 이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소재로 하는 비극 『페르시아인들』을 무대에 올렸다. 그는 이 작품에서 살라미스 해전(기원전 480년)의 용사의 고귀한 자세와 페르시아 제국의 불경스러운

오만과 무례(hubris)의 비극적 종말을 보여주었다.

“오 헬라스의 아들들이여(ὦ παῖδες Ἑλλήνων), 진격하라!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자식들과 아내들의 자유를 위하여, 조상들이 물려준 신들의 처소들과 조상들의 무덤의 자유를 위하여! 지금 이 모든 것이 걸려있다!”<sup>52)</sup>

그리스의 전사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에 맞서 조국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아이스켈로스(기원전 525-456년)는 그들의 희생을 고귀한 것으로 찬양했다. 그러나 그의 비극이 페르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응징과 동방원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페르시아인들의 제국주의적인 폭력(hubris)이 빚어낸 파멸과 불행을 추억하는 것이다. 페르시아가 분수를 모르고 신이 그어 놓은 한계를 넘어 신의 뜻을 거스르는 무례한 폭력을 범하다가 신들에게서 벌을 받았다는 ‘반면교사’의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자신만만한 아테네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경계하려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 내부의 동질성 회복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려는 것에는 찬성하겠지만, 그 힘을 가지고 헬레스폰토스를 넘어 페르시아를 치는 동방원정을 촉구하는 것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헤로도토스(기원전 484-426년)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플라워의 분석에 따르면,<sup>53)</sup> 헤로도토스는 스파르타의 클레오메네스에게 아시아로 원정을 떠나자고 제안했던 밀레토스의 아리스타고라스와 스키타아의 사절들의 제안을 이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sup>54)</sup> 페르시아 전쟁이 있기도 전에 아시아로 건너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패권을 차지

52) 아이스켈로스, 『페르시아인들』 402-405행.

53) Flower, M. A., (2000), pp. 69-76.

54) 헤로도토스, 『역사』 제5권 49, 『역사』 제6권 84.

할 수 있다는 제안 자체가 헤로도토스가 사후적으로 구성해낸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의 기록은 페르시아 전쟁 이후 생겨나고 커져가는 아테네의 제국주의적 욕망, 즉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은 가능하며 바람직하고,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종속시키려고 했던 시도의 실패에 대한 논리적 결과”<sup>55)</sup>라는 신념을 과거 속에 투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헤로도토스가 “전쟁이 평화보다 못한 만큼이나 내분은 합심하여 전쟁을 하는 것보다 못하다”<sup>56)</sup>는 것은 인정했지만, 동방원정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아테네인들에게 그 어떤 형태의 제국주의적 팽창도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던 것이다.<sup>57)</sup>

기원전 4세기에 플라톤도 아테네와 그리스 도시국가의 팽창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국가』에서 일부의 사람이나 특정 집단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전체가 최대한 행복해지는 정의롭고 이상적인 국가, “아름다운 나라”(kallipolis)를 구상하였다. “각자가 자신의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각자가 여럿이 아닌 한 사람으로 되도록 하고, 또한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 전체가 자연적으로 여럿이 아닌 한 나라가 되도록 하며”<sup>58)</sup> “나라가 커지더라도 하나로 머물러 있게 되는 한도까지, 즉 그 정도까지 키우되 그 이상은 키우지 않는다”<sup>59)</sup> 정책을 제안했다.

55) Flower, M. A., (2000), p. 76.

56) 헤로도토스, 『역사』 제8권 3.

57) Flower의 보고에 따르면(p. 75, n. 39), 다음과 같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해석을 하였다. Moles, J. L., (1996), “Herodotus Warns the Athenians” In *Paper of the Leeds International Latin Seminar*, Vol. 9, Leeds, pp. 259-284; Pelling, C., (1997), “East is East and West is West-Or Are They? National Stereotypes in Herodotus”, *Histos* 1: March.; Dewald, C. (1997), “Wanton Kings, Pickled Heroes, and Gnomie Founding Fathers: Strategies of Meaning at the End of Herodotus's *Histories*” In D. H. Roberts, F. M. Dunn, and D. Flower, eds., *Classical Closure: Reading the End in Greek and Latin Literature*, pp. 62-82, Princeton.

58) 플라톤, 『국가』 423d. 플라톤의 『국가』 인용문은 박종현의 번역임. 2005, 서광사(초판은 1997).

뒤집어 보면 제국주의적인 팽창의 욕망은 국가의 평화와 존립,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억제하지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통치자들이라면 “이 나라를 규모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크게 만들어야 하고, 또 그만한 크기만큼의 영토만 경계를 긋고서는 다른 땅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게 하는 기준”<sup>60)</sup>만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도시국가를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범그리스주의는 내부의 갈등과 분열, 다툼과 전쟁을 제어하고 자치와 자유를 상호 존중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이념으로만 의미가 있다.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간다고 해도, 외부의 거대한 세력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연대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플라톤의 정치적인 구상은 5세기에 싹터나 4세기에 이소크라테스에 의해 본격화된 범그리스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철학적 안티테제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플라톤의 국가론과 이소크라테스의 동방원정론을 비교하는 것은 기원전 5-4세기 그리스 고전기의 정치적인 상황과 흐름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마케도니아의 팽창을 경계하며 아테네의 도시국가 체제를 민주정의 형태로 수호하며 그리스 전체의 연합과 아테네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정치연설가들의 행보와 사상을 이해하는 일도 필요하다. 가장 뛰어난 의회연설가로 꼽히는 데모스테네스와 그와 함께 반마케도니아 전선을 구축했던 휘페레이테스와 데이나라코스의 연설문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요청된다.

---

59) 플라톤, 『국가』 423b.

60) 플라톤, 『국가』 423b.

## 참고문헌

### 【논 저】

- 김봉철(2004), 『전환기의 지식인, 이소크라테스』, 신서원.
- \_\_\_\_\_(2001), 「이소크라테스의 유럽 관념의 실상과 한계」, 『서양고전학연구』 제16집, pp. 37-62.
- 김 현(2015), 「이소크라테스와 시민 교육」, 『서양고전학연구』 제54권 1호.
- \_\_\_\_\_(2013), 「이소크라테스의 철학과 파이데이아에서의 ‘의견(doxa)’ : 플라톤의 ‘의견’ 개념과 비교 연구」, 『서양고전학연구』 제50집.
- 이태수(2013), 「호메로스의 영웅주의 윤리관」, 『서양고전학연구』 제50집.
- Canto-Sperber, M. (1998), *Philosophie grecque*, Paris.
- Carlier, P. (1995), *Le IVe siècle grec jusqu'à la mort d'Alexandre*, Paris.
- Cartledge, P. (1993), *The Greeks*, Oxford.
- Dewald, C. (1997), "Wanton Kings, Pickled Heroes, and Gnomic Founding Fathers: Strategies of Meaning at the End of Herodotus's *Histories*" In D. H. Roberts, F. M. Dunn, and D. Flower, eds., *Classical Closure: Reading the End in Greek and Latin Literature*, Princeton.
- Dillery, J. (1995), *Xenophon and the History of His Times*, London.
- Flower, M. A. (2000), "From Simonides to Isocrates: The Fifth-Century Origins of Fourth-Century Panhellenism", *Classical Antiquity*, Vol. 19, No. 1.
- Green, P. (1996), "The Metamorphosis of the Barbarian: Athenian Panhellenism in a Changing World." In ed. by R. W. Wallace and E. M. Harris, *Transitions to Empire, Essays in Greco-Roman History, 360-146 BC, in honor of E. Badian*, Norman, Okla., and London.
- Grote, G. (1846 - 1856), *A History of Greece; from the Earliest Period to the Close of the Generation Contemporary with Alexander the Great*, London.
- Guinness World Records, "Largest empire by percentage of world population", Retrieved 11 March 2015.
- Hall, E. (1989), *Inventing the Barbarian, Greek Self-Definition through Tragedy*, Oxford.

- Hall, J. M. (1997), *Ethnic Identity in Greek Antiquity*, Cambridge.
- Haskins, E. V. (2004), *Logos and Power in Isocrates and Aristotl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Janik, J. (2012), *Political Concepts and Language of Isocrates*, Kraków.
- Kessler, J. (1911), *Isokrates und die panhellenische Idee*, Paderborn.
- Kim, H. (2012), "Isocrates' Philosophy in Relation to Education", *The Journal of Greco-Roman Studies*, vol. 47.
- Konstan, D. (2004), "Isocrates' Republic", *Isocrates and Civic Education* (ed. by T. Poulakos and D. Depew),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 Laistner, M. L. W. (1930), "The Influence of Isocrates's Political Doctrines on Some Fourth Century Men of Affairs", *The Classical Weekly*, Vol. 23, No. 17.
- Mathieu, G. (1925), *Les idées politiques d'Isocrate*, Paris.
- Merlan, P. (1954), "Isocrates, Aristotle and Alexander the Great",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Bd. 3, H. 1.
- Moles, J. L. (1996), "Herodotus Warns the Athenians", In *Paper of the Leeds International Latin Seminar*, Vol. 9, Leeds.
- Norlin, G. (1928), *Isocrates*, Vol. 1, Harvard University Press.
- Ober, J. (2010), "Wealthy Hellas"(Draft for the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2011), *Princeton/Stanford Working Papers in Classics*.
- \_\_\_\_\_ (1998), *Political Dissent in Democratic Athens, Intellectual Critics of Popular Ru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elling, C. (1997), "East is East and West is West-Or Are They? National Stereotypes in Herodotus", *Histos* 1: March.
- Pertman, S. (1976), "Panhellenism, the Polis and Imperialism", *Historia* 25.
- Poulakos, T. (1997), *Speaking for the Polis, Isocrates' Rhetorical Educ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Poulakos, T. and Depew, D. (ed.) (2004), *Isocrates and Civic Education*,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 Romilly, J. de (1988), *Les grands sophistes dans l'Athènes de Périclès*, Paris, Éditions de Fallois.
- Ryder, T. T. B. (1965), *Koine Eirene. General Peace and Local Independence in Ancient Greece*, Oxford.

- Sakellariou, M. B. (1980), "Panhellenism: From Concept to Policy" In M. Hatzopoulos and L. Loukopoulos eds., *Philip of Macedon*, Athens.
- Sandys, J. E., ed. (1872), *Isocrates: Ad Demonicum et Panegyricus*, London, reprinted 1979 by Arno.
- Smith, L. F. (1940), *The Genuineness of the Ninth and Third Letters of Isocrates*, Lancaster.
- Sussman, J. H. (1921), *Die Grundzüge der panhellenischen Idee im 5. und 4 Jahrhundert v. Chr.*, Diss. Zürich.
- Timmerman, D. M. (2002), "The Aristotelian Fix: Fourth Century B.C. Perspectives on Political Deliberation", *Rhetoric Society Quarterly*, Vol. 32, No. 3.
- Too, Y. L. (1995), *The Rhetoric of Identity in Isocrates, Text, Power, Pedagogy*, Cambridge.
- Usher, S. (1990), *Greek Orators III—Isocrates, Panegyricus & To Nicocles*, Warminster.
- West, M. L. (1993), "Simonides Redivivus", *Zeitschrift für Papyrologie und Epigraphik* 98.
- Yarshater, E. (1996), *Encyclopaedia Iranica*, Routledge & Kegan Paul.

원고 접수일: 2015년 6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5년 7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5년 7월 30일

ABSTRACT

---

## Isocrates' Panhellenism

KIM, Heon\*

In the fourth century BC, Isocrates advocated so-called panhellenism as the most effective way to overcome the crisis with which Greeks were faced at that time. His panhellenism mainly consists of two parts: (1) Greeks have to put an end to mutual rivalries and to achieve a unity among themselves, (2) Greeks have to go on a military expedition in order to wage a war against the barbarians (=Persians).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parts of Isocrates' panhellenism.

In general, panhellenism was born and developed as a result of the Persian invasions in the fifth century BC. The enmity against Persians made Greeks united as one. Furthermore, Greeks designed a panhellenic expedition for the purpose of conquering the Persian Empire. This political vision was succeeded by Isocrates and finally was accomplished by Alexander the Great, the Macedon King.

Isocrates considered the Greeks not simply as a ethnic community but rather as an ideological community formed by an education that could make its members have a concord or 'oneness of mind (*homonoia*)'. In

---

\*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view, hellenistic spiritual and mental factors such as philosophy, language, religion, mythology, history, tradition, law and political constitute were considered more valuable than ethical identity for being a Greek. The thought that such Hellenistic factors are universal and essential for all mankind should result in the sense of duty to hellenize all the barbarians. Consequently the panhellenism would consist not only of the unification of Greeks, but also of the military expedition to the Persian Empire justifying it as a necessary enterprise for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of the barbarians.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fifth and fourth centuries there were also critical attitudes to the imperialistic panhellenism. For instance, Plato, the most important philosophical rival of Isocrates tried to design a ideal polis with a moderate size. That means a critique to Isocratic panhellenism. On the other hand, the tragic poet Aeschylus and historian Herodotus seriously altered the tragical ending of imperialistic expansion by showing the example of Persian War.

